

Words at an Exhibition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1994년 중국 베이징 출생
현재 미국 뉴욕 및 베이징 거주

회화, 드로잉, 비디오 작업에 천착하던 리우 와는 최근 몇 년간 드로잉 작업을 가상현실로 전환하는 중이다. 〈Devil's Ivy〉(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대한 현실과 허구, 진실 및 가짜 뉴스 사이의 왜곡된 경계를 탐험하는 비디오 에세이다. 관객들은 폐쇄된 우한시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람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무덤이 생겨난 뉴욕 북동쪽에 위치한 하트섬으로 향하는 비현실적인 여행을 떠나게 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기이한 상징적 요소는 전염병이 오기 전부터 사회에 오래도록 내재되었던 문제들, 가령 공적 감시와 사회적 불신을 표면으로 불러낸다. 〈Devil's Ivy〉는 바이러스의 창궐과 더불어 2020년 봄부터 인터넷에 주입되어 떠다니던 편견, 모순적 서술 및 음모론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작품의 제목은 어디서나 자라나는 덩굴식물의 이름 '스칸답서스'(Devil's Ivy)에서 따왔다. 따왔다. 이 식물은 제거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한다. 이전 작품 〈Racing Thoughts〉(2019)는 2채널 비디오 설치로 리우 와

의 드로잉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다. 작품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임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병치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두서 없는 인터넷 서핑을 추적한다. 오른쪽 화면으로 뇌파 헤드셋이 모니터링하는 작가의 실시간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왼쪽으로 작가의 생각과 상상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작가가 끝없이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며 내리는 동안 인터넷은 예기치 못한 발견들을 현실세계로 가져온다. 이는 신경기술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부터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와 냉전기 동안의 핵 산업과 같은 정치 및 환경적 주제를 포괄한다. 리우 와의 회화 작업에서도 환경 및 사회적 쟁점이 드러난다. 홍수가 난 풍경 속 살아 남은 사람과 동물들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제시한다. 리우 와의 종말론적 설치 작업 〈Glimpse: A Passing Look〉(2019)은 회화라는 전통적 매체와 현대적 기술을 혼합한 작품으로 강렬한 경험을 제공한다. 신경기술을 통해 실현된 몰입형 설치작업은 관객의 변화하는 집중도를 감지하고 반영한다.

Born 1994 in Beijing, China
Lives in New York, USA, and Beijing

LIU Wa works with drawings, paintings, and video, and for the last few years, she has turned her drawings into virtual reality works. *Devil's Ivy* (2020) is a video essay that examines the distorted lin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truth and fake new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t sends the viewer on a surreal trip to the city of Wuhan under its lockdown, onto the virus infected cruise ship The Diamond Princess, and the mass grave on Hart Island in the northeastern side of New York City. As the invisible virus morphs into bizarre symbolic elements, it exposes issues embedded in society from long before the contagion, such as public surveillance and social distrust. *Devil's Ivy* is a response to the bias, contradictory narratives, and conspiracy theories that floated through internet during the spring of 2020. The work's title is inspired by a commonplace vine named Devil's Ivy—a plant that is (almost) impossible to exterminate and stays green even in the dark. *Racing Thoughts* (2019) is a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also based on LIU Wa's drawings. The work traces the artist's

discursive internet surfing by juxtaposing both clinical and humanistic approaches to emotions. On the right-hand screen, a brainwave headset monitors her real-time emotional changes, whilst on the left-hand screen hand-drawn animations illustrate her thoughts and imagination. As she scrolls through the endless webpages, the internet brings unexpected discoveries back into the real world, which range from data privacy in neurotechnology to mental health issues among students, and environmental and political topics such as air pollution in China to its nuclear industry during the Cold War.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are also present in LIU Wa's painting, which present dystopian, flooded landscapes with surviving animals and humans. Her apocalyptic installation *Glimpse: A Passing Look* (2019) presents an intense experience, in which she manages to merge contemporary technology and the traditional medium of painting. Realized via neurotechnology, the immersive installation senses and reflects the viewer's changing attention levels. The installation is experienced with an elec-

관람객은 배치된 EEG(뇌전도) 헤드셋을 쓰고 빨강, 파랑, 녹색의 원소 색상으로 구성된 일련의 색상 코딩 회화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기술적 경험과 접근법, 무엇보다 신경과학적 방법을 통해 리우 와가 창조한 것은 관람객의 추상적 감정과 물리적 환경을 잇는 시각적 연결점이다. 전통적인 방법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간의 상상력, 신체적 상호작용 및 정치·인류학·환경적 인식을 다루는 리우 와는 과학적 접근 방식, 특히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추상적 감정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시각적 경로를 만들어냈다.

애니메이션과 VR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키니까? 제 VR 작업 <Devil's Ivy>는 4개월간의 온라인 리서치 및 우한, 뉴욕, 크루즈 선박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야기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고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던 여러 재능 있는 시각 및 사운드 예술가들이 있는데, 컨셉이 정해진 뒤에는 이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채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함께 자라났으며 강력한 방식으로 이를 비판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작가군을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필요로 합니다. VR은, 관객들이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와중에 흡입력 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수단으로서 예술을 경험하고 민주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과 자가격리 등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작업(작품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봉쇄조치는 저의 사회적 습관과 일상 속 루틴을 바꿔 놓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당연시 여기던 순간순간의 자유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2020년은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불확실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깨달음을 주는 해입니다. 제 VR 작업 <Devil's Ivy>는 이 경험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온라인 상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때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인터넷 상의 진실과 상상 사이 경계를 비꼬는 다큐 픽션입니다.

작가의 추천

알베르 카뮈, 『페스트』(1947)

[전시장소] 부산현대미술관 / 지하 1층

[이야기] 아말리에 스미스, 「전기(電氣)가 말한다」

troencephalogram (EEG) headband placed on the visitor's head, revealing a series of color-coded paintings of elemental colors of red, blue, and green. Through technological approaches—neuroscience in particular—she creates visual connections between the abstract emotions of the audienc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LIU Wa's work uses traditional method and digital interfaces to generate human imagination, bodily interaction and political, anthropological and environmental awareness.

How do you develop and make your animations and VR experiences? My VR work *Devil's Ivy* evolved from four month of online research and multiple interviews with people directly impacted by the pandemic in Wuhan, New York and on the cruise ship. Making a thought-provoking work about an ongoing event was challenging. I spent plenty of time constantly digesting new information and balancing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Once the concept was finalized, I remotely collaborated with several talented visual and sound artists whose input opened up new possibilities for me. The current digital age needs a new community of artists who grew up with technology and are able to utilize and critique it in powerful ways. I use VR as an immersive and exciting way of experiencing and democratizing art, inviting the audience to sympathize with the lives on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COVID-19 lockdown has influenced work, travel, transport and our everyday, how has it influenced you during the preparation?

The lockdown has changed my social habits and routines, and has made me cherish the transient moments of freedom and happiness that I had taken for granted. For me personally, I think 2020 is a tough yet rewarding lesson on how to live with uncertainties. My VR work *Devil's Ivy* is directly inspired by this experience. It is a docu-fiction satirizing the increasingly blurred lines between truth and imagination on the Internet, as we become spatially restricted and therefore dependent on online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ook Recomme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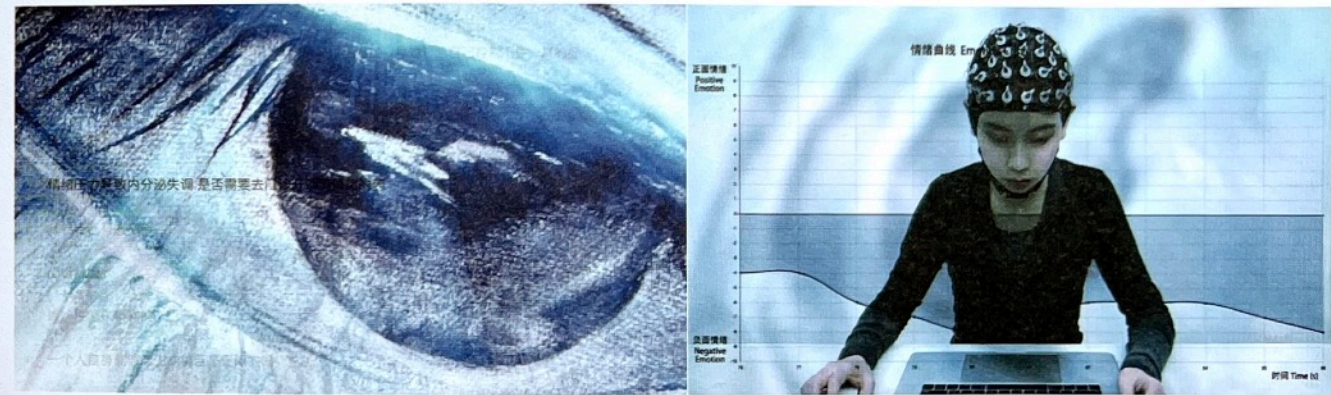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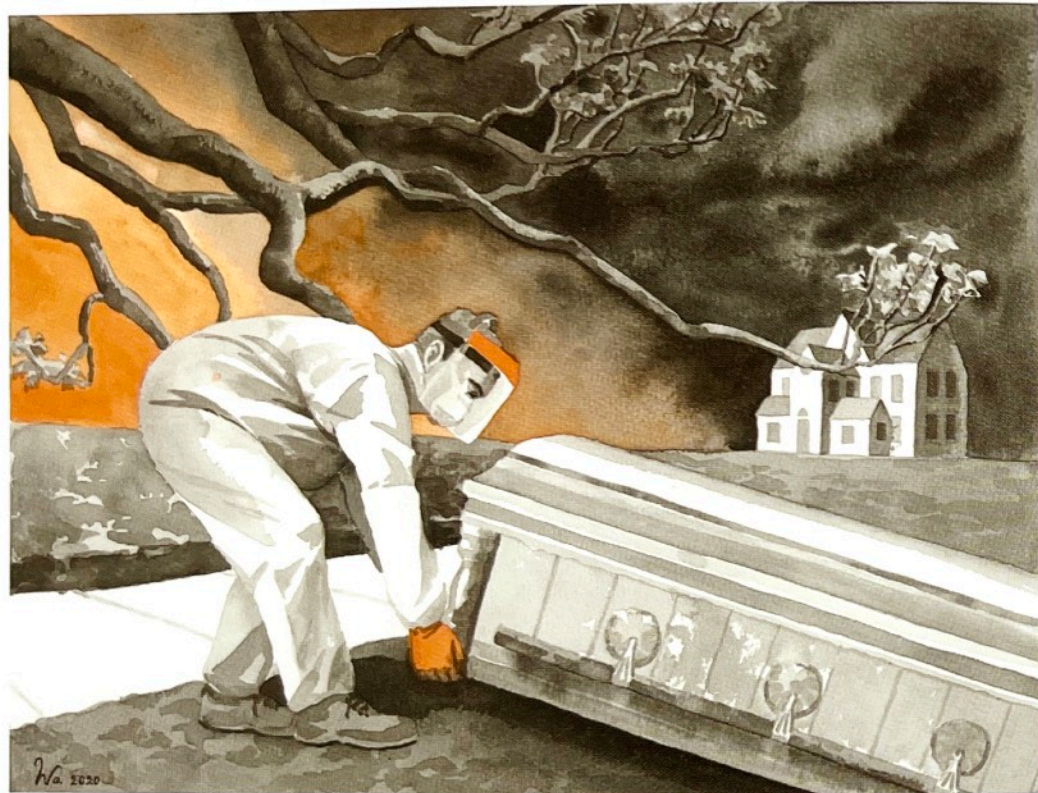
Albert Camus, *The Plague* (1947)

[Venue] MOCA / B1

[Chapter] Amalie SMITH, *Electricity Speaks*

How do you relate to Amalie SMITH's short story?

I feel very connected to Amalie SMITH's short story, because almost everything in our life is now powered by electricity—light, computer, Internet, fridge, etc. I'm a digital native, so electricity is really the foundation of my life that makes me feel connected and secure. In my previous work *Moon Milk*, I drew upon Italo Calvino's novel as a literary reference. This time, however, I use SMITH's story more like a metaphor. In the two works in Busan Biennale, I adopt neuro-technology and virtual reality to interrogate how electricity, immaterial as it is, has reconfigured our daily experience in the material world in recent decades.



[↑]

《Devil's Ivy》, 2020, 가상현실, 9분
Devil's Ivy, 2020, Virtual Reality, 9 min
 Director: LIU Wa, Producer: Qinya (Jenny) GUO, VR Artist: SUTU, Sound Artist: Matt MCCORKLE

[↑]

《Racing Thoughts》, 2019, 2채널 비디오 설치, 7분 28초
Racing Thoughts, 2019,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7 min 28 sec
 Courtesy of the artist